회사창립50주년맞은중견건설업체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 직원 모두와 더불어 내실 경영에 더욱 박차를 ”

우리나라 건설산업 태동기인 1958년 2월 5일 창립된 삼일기업공사가지난달1일창립 50주년기념식행사를가졌다. 이날행사에서는장기근속직원에대한포상과우수, 모범, 성실그리고공로상과 특히 50년 역사를 함께한 전임 임직원 및협력업체와유관기관에대한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삼일기업공사는 창립 이래 1980년도 중반까지 원칙을 중요시하는 FED 공사 전문 업체로 품질, 공기, 안전 관리분야에서상위5대업체에포함될정도의중견건설업체로성장하였다.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는 “ 삼일기업공사가창립 50주년을맞을수있었던것은 비교우위가있는사업분야에주력하여전문화를 이룬데다, 50년간 무차입 경영 원칙을고수함으로써금융적인안정과내실있는성장을이룰수있었다 ”라고말했다.

박대표는또한건설업의특성인협력업체를 동반자나아가또다른고객이라는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날짜에 100% 현금으로대금을지급함은물론투명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협력 업체는성실시공과공사품질향상으로최고의 시공 품질로 발주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건설업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 윤리 경영 ’이다. 삼일기업공사는 2006년부터 투명한경영을위해 윤리경영을선포하고 선물 및 향응, 접대 금지를 통해 깨끗한건설산업풍토조성에앞장서고있다.

삼일기업공사는 최근 주력 공사 분야였던FED 공사의물량감소와외환위기이후 대형건설업체들의참여로수주경쟁이치열해지는 등 수주 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FED 공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건설 기술을 활용국내공공및민간공사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업무용빌딩, 상가, 아파트, 전통고건축, 특히최고의시공기술능력을요구하는 병원 공사와 초현대식 고급 빌딩 공사에뛰어난시공능력을발휘하고있다.

박 대표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회사경영에임하고있다. 주택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의 길이 아니라 고판단돼결코그길은가지않는자제력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결과박대표가취임한지난1990년3월 이후 영업 적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흑자경영을유지하고있다.

박대표의이러한경영신념은부친이자 삼일의창립자인박성규회장의‘ 삼분지일(1/3) 지론 ’에서비롯되었다고말했다.‘ 1/3은능력부족탓이요, 1/3은애당초타인의 것이요, 나머지 1/3이 내 것 ’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 1/3 지론 ’을 “ 쓸데없는 과욕은신용도잃게하고심지어는부정한 행위조차서슴지않게하여진정한사업을 영위할수없게한다 ”고해석했다.

또한 박 대표는 회사는“ 최고 경영자 혼자서하는것이아니라모든구성원들이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라는 신념도 갖고 있다. 그결과박대표와직원간에신뢰관계가 뿌리내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애사심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이는 성실한 공사 수행으로 이어지고회사의이익이창출되면곧나의이익이라는확신아래회사구성원들이일치단결하여회사경영의투명성확립에노력하고 있다고한다. 이직률이매우높은건설업에서 임 · 직원의80% 이상이15년이상한가족처럼장기근속하고있다.

박대표는 바쁜 경영 일선에서도IFAWPCA 이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996년 IFAWPCA 서울대회때는사무총장을맡아 한국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년동안전력투구한결과당시세계언론으로부터역대최고의대회로평가받는쾌거도 이루었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